

군민헌장

즐기찬 태백산맥의 동녘 동해를 바라보며 해안을 끼고 앉
은 우리 읍진은 풍광(風光)이 빼어난 천혜(天惠)의 고장으로
옛부터 글 읽고 예를 지킨 문향(文鄉)이면 불의에 불복했던
충절(忠節)의 고을이다.

조상의 슬기와 열이 담긴 복된 터전에서 우리는 희망찬 내
일을 위해 헌정을 제정하여 삶의 지표로 삼는다.

1. 사랑을 베풀고 정을 나누며 더불어 살아가는 군민이 되자.
1. 불의를 배격하고 정직하게 살아가는 군민이 되자.
1. 겸손하고 질서를 지키며 지혜롭게 살아가는 군민이 되자.
1. 성실하고 절약하며 부지런히 살아가는 군민이 되자.
1. 자연환경을 보전하고 향토문화를 꽃피우며 살아가는 군민이 되자.

